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7 홍해작전 6월 6일(금) 시작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97 홍해작전이 6월 6일(금) 새벽 5시에 시작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특별히 현충일인 6일에 개전하는 홍해작전은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로서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세계선교, 크리스찬 문화 형성, 개인의 신앙 부흥 그리고 새 예배당 건축 등의 일곱가지 공동기도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를 드리게 된다(표). 또한 정직·절제·사랑의 실천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천국시민의 삶을 훈련하게 된다.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는 25일(수)까지 20

일간 오전 5시부터 한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진행된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역사적 사건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현재의 갖가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프로그램이다.

홍해작전 본부(본부장 이남호장로)는 ‘97 홍해작전의 주력부대를 일자별로 발표하고 “이 기간 동안 서로를 깨우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홍해를 건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97 홍해작전 기도제목

- 1.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질서, 북한 동포를 위해...
- 2.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
12개 교회학교, 12개 교구와 다락방의 부흥을 위해...
- 3.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일가친척을 위해...
-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농어촌 110개 교회의 부흥과 선교사역지,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해...
- 5. **약한 문화 추방과 크리스찬 문화 형성을 위해**
퇴폐문화 물질만능주의의 퇴치를 위해,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 6. **개인의 신앙부흥을 위해**
말씀·기도·찬송·전도에 대한 불길이 타오르도록...
- 7.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건축허가와 민원의 해결, 기공예배와 건축일정을 위해...

공동의회소집

안수집사·권사 선출에 관한 건

6월 1일(주일) 찬양예배 후

우리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권사와 안수집사를 각각 선출한다.

안수집사는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헌법 제 2편 정치 8장 51조). 단 우리 교회 당회는 나이를 40세 이상된 자(57년생 포함)로 정하고 인원을 40명으로 하되 1.5배수인 60명을 오늘 공동의회에 추천하기로 하고

투표는 한 차례만 하기로 했다. 본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투표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6개월간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육에 참여해야 안수를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1/5이상 출석 미달되는 이는 자동 탈락기로 했다.

권사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45세 이상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헌법 상기 53조). 단 우리 교회 당회는 나이를 50세 이상된 자(47년생 포함)로 정하고 인원은 정하지 않되 당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

은 자로 하였다. 오늘 공동의회에 상정된 65명의 권사후보는 지난번 공동의회 결의대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이들이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공동의회는 인준케 된다. 그러나 권사후보도 취임을 위해서는 안수안수집사와 같은 훈련기간 및 조건이 있다.

28일
내일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수료예배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종강

몽골, 캄보디아, 네팔의 목회자들이 참가했던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가 28일(수) II부 예배 시 종강예배를 드림으로써 막을 내렸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새벽기도회, 다락방모임, 산상기도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강의와 토론에서 배우고 결심한 것을 조국에 돌아가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학대

학, 성서공회, 기독교 대학 등 현장학습을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종강예배 시 이종윤 목사는 교회가 준비한 김치(김치)를 연상할 수 있는 수저셋트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며 “두 개가 있어야만 재구실을 하는 것가라처럼 십자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자”고 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복음과 상황”이라는 주제로 3월 24일에 시작한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6월 2일(월)에 종강한다.

로마서 연구와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한국교회의 현실, 북한의 상황, 시민운동, 신학교육 등 다각도의 ‘상황’을 ‘복음’과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와 기도를 계속했던 이번 학기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목회의 방향설정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요셉에게서 우리는 믿는 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가 프란츠 보르카노(Franz Borkenau)는 인간 문화를 죽음에 대한 태도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고대 회랍 문화는 죽음을 수용하는 문화이며, 기독교 문화는 죽음에 도전하는 문화이고, 현대 문화는 죽음을 부인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1.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일단은 그것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우리의 마지막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죽음을 마지막 원수로 여기지 않고 죽음은 운동이나 약이나 심리요법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없는 죽음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주관자이며 인간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때와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죽음을 부인하려 합니다.

2. 죽음을 수용하는 문화

고대 헬라인들은 죽음을 매우 기쁘게 수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고대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게 되었을 때 그의 젊은 제자들이 찾아와 그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젊은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이성애 호소하며 기쁘게 독배를 마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회랍인들은 특별히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은 약한 것이며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죽음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을 악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을 육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

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랍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3. 죽음에 도전하는 문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사망을 이기

울어야 할 때



이종운 목사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버지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십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십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창 50:1-13)

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전15:55-57).

성경은 죽음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과 죽음을 이긴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사망을 허락하시되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불가불 한 번은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죽음은 교만한 인간들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

다.

요셉은 지금 야곱의 죽음 앞에서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별 수 없이 아담의 후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인생이었음을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70일 동안 곡을 했고, 시체에 향을 넣기 위해 40일 간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지내기 위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이 적어도 3주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거의 100일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을 울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애곡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죽음 너머에 있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존중히 여기고 잘 지켜왔습니다. 유언을 잘 지키는 것도 효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 달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자기가 죽었을 때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창 50:25).

요셉은 가나안으로 가는 장례 행렬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이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지, 또 왜 막벨라 굴에 묻혀야 되는지를 말할 것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요 그 땅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인 것을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당하여 슬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과 살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 4:1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너무 크게 슬퍼하면 안됩니다. 잠시의 이별로 인한 슬픔은 있겠으나 세상이 망한 것처럼 슬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둘째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

김치(KIMCHI) 세미나를 마치며

“분에 넘치는 대접 받으며 조국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한 몽골·캄보디아·네팔의 목회자들은 지난 26일(월)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을 둘러 한국의 목회자 재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 8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에 참가했던 몽골, 캄보디아, 네팔의 교계 지도자들은 자국복음화의 역군이 되기 위해 지난 5월 29일과 30일에 각각 서울을 떠났다.

이들은 떠나기 직전 설문지를 통해 한결 같이 성공적 세미나였다고 평가하고 자국복음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격찬과 아울러 감사를 표했다.

다음은 참가자들이 작성한 평가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① 김치(KIMCHI)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성장과 영적갱신운동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참석자 전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답을 했다.

②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와 자국교회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③ 또한 이 세미나를 통해 세계선교 특히 자국교회의 선교전략을 발견 또는 개발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두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④ 김치(KIMCHI) 세미나가 귀하가 섬기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갱신 시킬만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⑤ 이 세미나의 가장 인상깊었던 것과 보충해야 할 점을 지적해달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서울교회 성도들의 새벽기도회와 다락

방운동 그리고 질서의식, 주님 사랑하는 충성심, 남을 도우려는 겸손한 자세, 훌륭한 강사진과 강의 내용, 희생과 헌신하는 신앙,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충해야 할 점으로는 좋은 음식을 대접받은 것은 크게 감사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너무 크게 대접을 받은 것이 송구스럽기까지 하며 자기들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값을 절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김치세미나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벽기도는 ... “꼭 빠지면 됩니다”

김삼환(명성교회 목사)

새벽기도는 하루의 만남 중에 첫 만남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만남과도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다른 사건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세상의 모든 주변 환경과의 만남이 잘 이어져 나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명언 중에 “새벽 기도 안하는 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은 날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과 접촉하기 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마

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에는 꼭 빠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일년만 훈련하면 꼭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근지러워 못살게 될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여인들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성막의 성소교인입니다. 이들은 주일 저녁예배, 수요일예배정도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지성소교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교인,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교인이 지성소 교인입니다. 새벽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는 하루의 첫 만남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새벽 기도 안하는 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현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의 대부분이 새벽기도에 열심이었던 자들입니다.

니다. 나쁜 것도 맞들이면 거기에 빠지는데 기도같이 좋은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새벽기도도 깊이 빠지면 못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맛보지 못했고 깊이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빠지려면 완전히 빠져야 합니다.

교인중에는 세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뜰 교인입니다. 이 뜰에 있는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많이 임하시는 현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 합니다.

새벽기도하는 사람치고 잘못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의 대부분이 새벽기도에 열심이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매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도록 하십시오.

찬양대원 세미나

6일(금) 오전 6 ~ 11시

찬양위원회(위원장 윤봉준장로)는 찬양대원의 영적 성숙과 음악적 자질향상을 위해 6일(금) 찬양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새벽기도회가 끝나는 오전 6시에 시작하는데 아침식사, 찬양, 예배, 강의와 워크숍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11시에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와 객상수 교수(연세대)로 이종윤 목사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라는 제하의 설교를, 객상수 교수는 예배음악과 찬양대의 역할 및 자세

등 교회음악 전반에 관한 특강과 찬양실습을 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의 참석대상은 찬양대원 전원이며 찬양에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전반기 모범 다락방 시상

교구위원회(위원장 김광신장로)는 97년 전반기 모범다락방을 선정, 시상하기로 했다.

시상 분야와 기준은 6개월간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다락방은 전도상(1·2·3등), 빠짐없이 매주 모임을 가진 다락방은 모범상, 다락방 모임 참가율이 가장 높은 다락방은 열심상(1·2·3등) 등이다.

시상식은 7월 6일(주일) 찬양예배시 있을 예정이다.

교구위원회는 이와같은 모범다락방 시상식을 통해 전반기 동안 열심히 모이고 교제 한 다락방을 격려하고 후반기에 더욱 열심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전도용 소책자 출판 지원

전도위원회(위원장 김태기장로)는 28일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박사)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비전 및 리더십을 확산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100페이지 정도의 청소년 전도용 소책자 10종을 출판 보급하도록 출판비 전액을 지원했다.

※ 순례자 컬럼 ※

징계의 사인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며 돌아설 기회를 주신 후에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징계의 사인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에게 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소리다.

시대감각을 갖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심판이 얼마나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날은 심히 크고도 두려운 날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임하기 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때가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징계하시기 보다는 용서를, 멸망케 하시기보다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 민족, 국가가 살기 위해 모든 우상과 악행을 버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자.

'97 홍해작전

주력부대

					요일 날짜	금 6	토 7
					교구 찬양대 교회학교 전도회	전교인 총진군	1·2 베들레헴 유치부 요한
요일 날짜	주일 8	월 9	화 10	수 11	목 12	금 13	토 14
교구 찬양대 교회학교 전도회	전체 호산나 유년부 마리아	3·4 시온 초등부 베드로	5·6·7·8 가브리엘 중등부 루디아	9·10·11·12 할렐루야 고등부 바울	1·2 임마누엘 대학부 에스터	3·4 베들레헴 청년부 모세	5·6·7·8 호산나 사랑부 한나
요일 날짜	주일 15	월 16	화 17	수 18	목 19	금 20	토 21
교구 찬양대 교회학교 전도회	전체 시온 유치부 요한	9·10 가브리엘 유년부 마리아	11·12 할렐루야 초등부 베드로	1·2 임마누엘 중등부 루디아	3·4 베들레헴 고등부 바울	5·6·7·8 호산나 대학부 에스터	9·10·11·12 시온 청년부 모세
요일 날짜	주일 22	월 23	화 24	수 25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3:2)		
교구 찬양대 교회학교 전도회	전체 가브리엘 사랑부 한나	1·2·3·4 할렐루야 유치·유년부 마리아·요한	5·6·7·8 임마누엘 초등·중등 루디아·베드로	9·10·11·12 베들레헴 고·대·청 에스터·바울·모세			

■ 교우동정 ■

* 오명걸군(고등부, 오정수장로·이영희집사 아들) 이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호우튼고등학교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130년 역사를 가진 이 학교에서 외국인이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민순구장로·이영희권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창」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승전할 수 있도록
2. 김치세미나 참가자들이 돌아가 자국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3.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서울주간기도